

셰틀랜드 양(Shetland Sheep)

여러 가지 영국 양종을 소개하였는데, 빠진 종류 몇 가지를 보완하고자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셰틀랜드 양이다.

한때 한국의 스웨터 수출이 한창일 때, 셰틀랜드 스웨터가 인기 품종 중의 하나였는데, 그때 그 셰틀랜드 스웨터의 소재가 되는 양모가 셰틀랜드 양모였었다. 물론 셰틀랜드 양모의 절대 생산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영국의 다운종 양모를 이용하여 셰틀랜드라고 하던 기억이 새롭다.

여하간에 이 셰틀랜드 양은 다운종과 산악종 및 언덕종(Mountain & Hill Breed)의 중간종이라고 할 양종으로 양모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운종의 하나다. 그러나 서식 환경에서 보자면, 다운종이라기보다는 산악종에 포함되는 영국 양종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북방 해상에 떠 있는 셰틀랜드 섬 및 그 부근의 암석으로 구성된 여러 섬들이 이들의 주 서식지로서 작은 관목의 잎과 바다의 이끼류를 먹이로 하고 보조식료도 없이 냉혹한 북방의 추운 기후에 견디며 서식하는 동물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도 기원전에 번영하였던 사오이 양(Soay sheep)의 혈통을 받은 것 같다. 이 사오이 양은 기원전 2천년 전후의 청동기 시대에 번성하였던 양인데, 지금도 스코틀랜드 북서방의 해상에 떠 있는 작은 외딴섬 St. Kilda 섬에서 원시 상태로 살아남아 있으며, 귀중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까지 일컫는 종류다.

다갈색의 양모가 많은데, 무플론(Mouflon)의 후손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이 섬에서만 사육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해 보아야 양모는 굵고, 촉감도 거칠어서 경제적으로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들떠보지 않는 탓이라고 생각된다.

양모의 섬도는 24~28 μm 이 중심이 되며, 이보다도 더 굵은 양모가 혼입되는 경우가 많

다. 양모의 길이는 75~100mm, 한 마리당 연간 수모량은 평균 1.4kg 정도인데, 양모는 백색이 많으며, 일부 무어 레드(Moor red), 브라운 그레이(Brown grey), 담황갈색(Fawn), 브라운, 그레이, 블랙 등이 있다. 양은 각 색상별로 사육되고, 색상별로 양모를 수모한다. 백색 이외에는 무어 레드 색상이 많으며, 다른 색상은 적다.

이 셰틀랜드 양은 고대 야생종의 성질이 있어, 봄이 되면 양모가 저절로 탈모한다. 그래서 이런 탈모에 의한 양모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한 때는 루잉(Rooing 또는 Ruing)이라고 하여 탈모 전에 사람의 손으로 잡아 뽑던 때가 있었는데, 영국 동물 애호단체의 반대로 현재는 탈모 전에 미리 가위로 깎아 낸다.

이 셰틀랜드 양모는 양모가 굵으면서도 의외로 부드러운 맛이 있어 유명하다. 셰틀랜드 양모는 일단 스코틀랜드의 방모공장으로 보내져서 위탁 방직한 다음, 실이 되어 돌아오면 섬 안에서 수공업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수편으로 니트 제품으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셰틀랜드 트weed(Tweed), 수편 의류(Hand knitted garment), 셰틀랜드 스타킹(Stocking), 장갑, 숄(Gossamer shawl) 등은 유명하여 세계적으로 인기 품목이기도 하다.

워낙 섬이 작고, 토지가 좁으며, 사육할 수 있는 초목도 적기 때문에 사육되는 양의 마리 수는 약 20만 마리 정도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세계에는 셰틀랜드 제품이라고 일컫는 제품은 많으나, 이 양의 사육 수로 볼 때, 정말 몇 %가 진짜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 (공석봉)



<Shetland sheep>